



# 배움의 웃음꽃이 핀다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순천 평생학습도시 지정 10년 결실  
176개 기관·단체 1473개 프로그램  
11만3000명 참여율 40.9% 달해  
하반기 온라인 종합서비스도 제공

순천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2014년 45%에서 2016년 60%, 2018년 70%까지 높여갈 계획이다.

◇평생학습 10년간의 결실=지난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국(局) 단위 평생학습 조직을 신설하고 조례도 제정했다. 전국 최초 '기적의 도서관' 개관 등 54개의 도서관을 확보하고 청소년수련관도 개관했다. 또 여성문화회관을 평생학습시설로 전환해 평생학습도시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2011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이끌어 왔다.

현재 관내 176개 기관·단체에서 1473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11만3000여명(참여율 40.9%·전국평균 35.6%)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평생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순천시는 올해 모든 평생학습 콘텐츠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 서비스망은 관내 163개(시 산하 56, 학교 78, 기관단체 29) 학습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습프로그램, 인적자원, 통계자료 등 실시간 정보 공유와 강좌 검색에서 신청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문화 등 5개 대학 178개 강좌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정원 가드너, 산림치유사, 정원해설사 등 지역연계 49개 전문과정을 신설해 시민들의 참여 폭을 넓혔다.

'해피콜 강좌'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 찾아가는 강좌 운영으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평생학습 마을학교인 '무지개 학당'은 다음달부터 마을 유휴공간을 학습관으로 지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민강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다문화 가정 맞춤형 교육도=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풍부하다.

한글 작문교실은 비문해자, 다문화가정, 탈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순천시는 성인인구는 7.9%인 1만4800명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 2005년 처음 시작한 '문해(文解) 교육'에 지난해까지 9300명이 수강했다.

올해는 평생학습관, 여성문화회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80개소에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오는 2018년까지 모든 주민이 글을 읽는 도시를 목표로 한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내 고장 바로 알기 탐방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관내 40개교 32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순천의 생태, 문화, 역사 등의 현장 탐방·체험 활동으로 지역을 바로 알고 애郷심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학습동아리 육성은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강좌 이수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사회공헌 활동 참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순천=예정열기자 yjy@kwangju.co.kr

## 제2회 김승옥 문학상 신인상·미래작가상 공모

김승옥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제2회 김승옥 문학상 신인상'과 '미래작가상'을 공모한다.

김승옥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2014년 가장 탁월한 소설집을 낸 기성 작가에게 주는 본상(상금 3000만원)과 별도로 일반인(대학생 포함)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각각 신인상과 미래작가상을 공모한다.

일반인에게 주는 신인상과 고교생에게 주는 미래작가상은 시와 소설 구분없이 오는 9월 15일까지 전자우편(munhak-sang@kbs.co.kr)으로 제출하거나 김승옥 문학상 운영위원회(순천시 중앙로 250 KBS순천방송국)에 우편으로 내면 된다.

신인상 대상과 추천 우수작에는 각각 300만원과 70만원을, 미래작가상 대상과

추천 우수작에는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의 상금을 주고, 당선작은 본상 작가의 추천작과 함께 '수상작품집'에 수록된다.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 시상식은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시상식을 전후해 국내 유명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캠프도 개최한다.

순천 출신 소설가 김승옥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탁월한 김승옥을 무기로 단편 미학이 도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개척해 한국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설집 '김박사는 누구인가?'를 펴낸 소설가 이기호가 김승옥 문학상 첫 본상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함부르크 스트링스 오케스트라 첫 내한공연

20일 순천 문화예술회관

독일 '함부르크 스트링스 오케스트라' <사진> 첫 내한공연이 20일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지난 2007년 창립된 함부르크 스트링스 오케스트라는 뛰어난 실력과 재치를 겸비한 젊은 음악가들의 감각이 돋보이는 세련된 오케스트라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내한공연에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연주자 송지나, 송지선 자매와 박은영이 함께 참여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다베르멘토', 바흐의 '2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김연아의 마지막 공식 무대의 곡이기도 했던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등 극적이면서도 풍부한 하모니가 시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공연 예술을 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R석 2만원 S석 1만원이다. 문의(061-749-3516)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정원디자이너 오경아씨 초청 23일 강연회

순천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가든디자이너 오경아 작가를 초청, 강연회를 연다.

6월 초청강사인 오경아 작가는 방송작가 겸 정원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며, 독창적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원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낮선 정원에서 엄마를 만나다', '소박한 정원'의 저자이며 201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장내 하나은행 씨드뱅크 가든을 디자인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구의 자연을 축소해 놓은 정원 속 세상을 들여다보면 식물, 곤충, 새 등 수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면서 "일상에 지친 우리를 초

대하는 순천만정원에서 공생의 의미와 비움으로서 얻어지는 진정한 휴식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정원에서 만난 사람'이란 주제로 정원도시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매월 생태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순천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과 생태이야기'란 주제로 서울시립대 이경재교수의 강의를 개최한 바 있다. 7월 생태전문가 초청 강연회는 서울대학교 고철환교수를 초청해 '한국의 갯벌과 세계의 갯벌'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 금속구조물
- ▶ 창호공사
- ▶ 도로표지판
- ▶ 휨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